

# “모빌리티·국방 AI 시뮬레이터 개발… 생명 구하는 기술”



## 오중석 이노시뮬레이션 이사

‘저희가 고객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느라 회사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사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난 9일 <메트로경제 신문>은 서울 강서구 발산에 위치한 이노시뮬레이션 본사에서 오중석 이노시뮬레이션 이사를 만났다. 이노시뮬레이션은 업력 25년의 스마트 모빌리티 XR(확장현실) 솔루션 기업으로, 자동차·선박·항공기·전투기 등 모빌리티 분야 전반에 걸쳐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기업이다.

이노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터는 실제 환경이나 장비와 유사한 조건을 가상으로 구현해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고, 교육·훈련·테스트·프로세스 최적화를 수행하는 모의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노시뮬레이션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나, AI로 산출물을 만들고자 하는 고객들이 그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



오중석 이노시뮬레이션 이사가 시뮬레이터 앞에서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서현 기자

**버추얼 테스팅, 버추얼 트레이닝 등 AI 완벽 활용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시뮬레이터 철학, ‘생명’으로 귀결**

도록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사는 이노시뮬레이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회사의 핵심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현실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학습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다. 그는 이를 ‘버추얼 테스팅’과 ‘버추얼 트레이닝’이라는 두 쪽으로 구분했다.

“차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면 중요한 건 장비 자체가 아닙니다. 센서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센서가 인지한 데이터를 AI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GPS 같은 센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연산해 가능한 주행 환경을 구현합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이 구축한 차량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을 다이나모 위에 올려놓고, 가상 도로 환경을 실제 주행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 영상뿐 아니라 레이더와 라이다 신호까지 함께 구현해 차량이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다.

“예전에는 센서만 따로 떼어 테스트했지만, 이제는 전체 자율주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실차를 옮겨 엔진, 제동, 회피 기동까지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진 거죠.”

그는 광주 AI 사업단에 납품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언급하며 “이 정도 규모의 장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가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테스트 인프라를 갖췄다고 봐도 된다는 평가다.

트레이닝 분야에서 AI의 역할은 또 다르다. 기존 훈련 시뮬레이터가 사람이 미리 설계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방식이었다면, AI 도입 이후 훈련 환경은 훨씬 역동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몇 번만 하면 상황을 외워버리죠. 하지만 AI로 가상의 인물을 실시간 생성하면, 같은 도로를 달려도 매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훈련 환경 자체가 지능화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자동차뿐 아니라 철도, 항공, 국방 시뮬레이터에도 적용된다. 그는 철도 시뮬레이터에 대해 “핵심은 운전이 아니라 고장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는 한 번 고장이 나면 뒤따르는 모든 열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고장 구

간을 우회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대응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과 거의 동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노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터는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는 ‘룰 베이스’ 훈련이었으나, 이제는 AI가 상상의 적군을 조종한다.

“훈련 효과를 높이려면 적군이 똑똑해야 합니다. 단순한 역할 기반이 아니라 AI로 움직이는 적군이 필요하죠. 그 적군을 학습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가 말하는 시뮬레이터에 대한 철학과 자부심은 결국 ‘생명’으로 귀결된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뮬레이터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악천후에서 파일럿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뮬레이터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의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리했다.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불화실성을 제거하도록 돋는 것,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홍범식, ‘MWC26’ 개막식 기조연설 나서

〈LG U+ CEO〉

LG그룹 경영자 중 첫 연설 참여 AI 콜에이전트 시대 전개방향 제시 ‘익시오’ 중심 경험·연결 가치 설명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를 주제로 AI 콜에이전트 시대의 본격적인 인전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중심으로, 음성 통화 환경에서의 고객 경험 변화와 사람 간 연결의 가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연설 중에는 음성 통화를 매개로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을 조명한 영상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연결에 사람을 담는다’는 사람 중심 AI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번 기조 연설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AI 시장을 향한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신 기반 AI 응용 서비스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2024년 말 온디바이스 기반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를 출시해 통화 녹음·요약,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AI 변조 음성 탐지 등의 기능을통신 서비스에 적용해 왔다. 최근에는 구글과 협업해 통화 중 생성형 AI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공개했다.

한편 홍 CEO는 MWC26 개막에 앞서 GSMA가 주관하는 스페인 국왕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만찬은 MWC에서 기조 연설을 맡은 CEO들을 초청해 매년 열리는 공식 행사다.

/김서현 기자

## KT,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

퀄컴-로데슈바르즈와 협력

KT는 글로벌 무선통신 기업 퀄컴테크놀로지스, 독일 통신장비업체 로데슈바르즈와 협력해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연한 기술은 국제 표준화 기구 3GPP 릴리즈 20에서 논의 중인 AI 기반 CSI(채널 상태 정보) 압축 기술이다. AI가 기지국과 단말 간 복잡한 무선 환경을 학습해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달되는 채널 상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지국의 다운링크 전송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KT와 퀄컴은 AI 기능이 내장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과 로데슈바르즈의 AI 기지국 시스템(CMX500 OBT)을 연동한 시험 환경을 구축했다. 여기에 KT는 자사 5G 네트워크 운용 경험과 기지국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적용했다.

시연 결과, 무선 채널 상태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됐으며 이를 통해 다운링크 성능이 약 50%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시연은 AI가 무선 네트워크 성능 자체를 개선할 수 있음을 상용 네트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 모습./KT

워크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3GPP 표준 기반 AI-RAN(지능형 기지국) 기술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KT는 이번 기술 외에도 AI 기반 통신국 최적 온도 관리 솔루션 ‘AI TEMS’, 기지국 및 서버 전력 절감 솔루션 ‘ESKI MO’ 등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 “연휴에도 빠르고 쉽게 eSIM 셀프개통”

KT엠모바일, 개통 시 추가혜택

KT엠모바일은 설 연휴 기간에도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eSIM 셀프개통 환경을 제공하고,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설맞이 혜택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eSIM은 별도의 유심(USIM) 카드 구매 없이 단말에 내장된 디지털 SIM을 통해 개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근 지원 단말 확대와 함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도 현지 유심을 구매하지 않고 eSIM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택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KT엠모바일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IM 셀프개통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담사 연결 없이 고객이 직접 개통을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특히 설 연휴와 같이 택배 배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쉬운 기간에는 유심카드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KT엠모바일은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eSIM 신규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중 개통이 필요한 고객은 eSIM 셀프개통과 함께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